

2011년 1월 17일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하루 11시간 노동, 한 달 급여 75만 원, 하루 식대 300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헐값에 부리다 엄동설한에 해고한 파렴치한 홍익대학교 당국

홍익대 미화·경비·시설 노동자 170명 전원은 새해 출근 첫 날 “살인과 같은 해고”를 당했다. 홍익대 당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헐값에 부리다 엄동설한에 해고해 버린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하루 11시간 일하면서 한 달 급여 75만 원, 하루 식대 3백 원을 받아 왔다. 대부분이 50~60세인 나이 지긋한 노동자들은 올분을 터뜨리며 총장실로 향했다. 총장은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를 거부한 채 줄행랑을 쳤고, 노동자들은 바로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의 요구는 고용승계, 최저임금 보장, 노동조합 인정, 식비 현실화, 식사 공간 보장, 폭언 금지. 정말이지 누구나 누려 마땅한 최소한의 것들이다.

대학 캠퍼스에 재벌이 지어준 화려한 건물이 늘어가는 동안 우리 어머니, 할머니 같은 청소노동자들은 밥 먹을 공간조차 없이 천대 받아 왔다. 한 홍익대 청소노동자는 “학교는 우리를 노예로 보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교가 시키는 대로 다 해온” 노동자들이 이제 학교에 맞서 일어섰다.

| 지급내역 | | 공제내역 | |
|-------|---------|-------|---------|
| 기본급 | 752,130 | 소득세 | |
| 직책수당 | | 고용보험 | 3,671 |
| 시간외수당 | | 주거세 | |
| 야간수당 | | 국민연금 | 36,000 |
| 공휴수당 | | 건강보험 | 23,169 |
| 주휴수당 | | 신원보험 | |
| 연장수당 | 63,705 | 계 | 62,840 |
| | | 차감지급액 | 752,995 |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급여 명세서
점거농성 중인 이 노동자들의 요구는 고용 승계, 최저임금 보장, 식비 현실화, 식사 공간 보장, 폭언 금지다.

“우리는 청소한 죄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주 열심히 했지”, “[투쟁을]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지”, “여기[본관] 아주 잘 들어왔어. 이렇게 언론에 뜨고 밥도 해먹고.” 그동안은 휴게 공간도 변변히 없었고, 냄새 난다고 학교 측이 구박해 국을 끓일 수도 없었다.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일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부산대, 성신여대, 고려

대, 이화여대, 연세대, 동국대 등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승리는 홍익대에서도 계속돼야 한다. 한 청소노동자의 말대로 청소노동자들의 승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승리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한 건데, 우리가 여기서 지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처럼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돼요.”

www.marxism.or.kr/mini2011

홍익대 청소 노동자의 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삶과 저항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새내기 맛이 포럼 - 미니 맑시즘2011

현대차 비정규직, 홍대 청소 노동자 투쟁 -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삶과 저항

※ <새내기 맛이 포럼 미니 맑시즘2011>에는 그 외에도 11가지 다양한 주제의 포럼이 열립니다. 1월 25일(화) - 27일(목)에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연사: 하종강_한울노동문제 연구소 소장 | 1월 25일(화) | 고려대 문과대학(서관) 132호



당신의 연대가 큰 힘이 됩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점거 농성이 벌써 3주 차로 접어들었다. 비난 여론이 높음에도 홍익대 당국은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다. 연대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대학 청소노동자 투쟁이 승리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연대였다. 난생 처음 투쟁이란 걸 하고 있는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에게 연대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들은 영화배우 김여진 씨, 다른 대학 청

소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연대를 고마워한다. “얼마나 고마워. 힘이 나잖아. 우리도 이기면 다른 데 그렇게 도와주러 다녀야지. 꼭.”

농성장 한쪽 벽에는 후원 물품과 후원 문구가 빼곡히 적혀 있다. “밥, 굴, 컵라면, 반찬 한가득 ... 힘내세요, 해피엔딩일 거예요, 제가 바로 외부세력입니다 ...”

이제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당신이 연대에 나설 차례다.

연대를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1. 투쟁 기금을 위한 모금에 함께해 주세요.
012559-02-078818 우체국 (예금주 이숙희)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장)
2. 홍익대 당국에 항의해 주세요.
총무과 전화 : 02-320-1064~7 /
FAX : 02-320-1122
3. 농성장 지지 방문을 함께 갑시다.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010-4223-0647)
4. 홍익대 투쟁 연대 집회에 함께 갑시다.
집회 문의 또는 함께 가실 분은 연락주세요.
(010-4223-0647)

홍익대 총학생회 유감

처음에 청소노동자 투쟁 지지를 거부해 질타를 받았던 홍익대 총학생회는 얼마 후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

나 ‘외부세력’ 개입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면서 승리에 꼭 필요한 연대를 가로막는 것은 모순이다. ‘외

부세력’의 지지와 연대가 홍익대 총학생회 자신의 입장을 바꾸게 만들지 않았던가.

홍익대 총학생회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성취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외부세력’의 지지와 연대가 홍익대 당국의 태도를 바꾸는 데도 일조하도록 ‘외부세력’ 개입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